

# I. 모스크바 지사

## □ 경제 동향

- 러시아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억제 및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으로 기준금리를 13~15% 구간에서 유지하고 있으며, 4.24일자 기준 기준금리는 현재 14.5%임. 25년도 최고점인 약 21%대비 지속적으로 금이 인하를 시행하고 있으나, 여전히 고금리 수준임
- 4월 외환시장은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 및 고금리 정책에 따라 루블 강세 현황이 지속되고 있음  
4월 초 1달러 대비 81.25~80루블은 4월 하순 74~76루블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3월 평균대비 루블 가치가 3-4% 상승한 것임

## □ 국내외 관광 정책

- 러시아 관광개발위원회 발표 결과, 25년 러시아 관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.1%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함. 러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러시아의 관광부문 GDP 비중은 19년 2.8%, 20년 2.4%로 하락한 후 점차 증가하여 24년 2.9%까지 증가하였음. 러시아 정부는 이를 30년 GDP의 5%이상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26.5월부터 러시아-사우디아라비아 간 비자 면제 협정 시행을 앞두고, 러시아 국가두마 관광 및 인프라 개발 위원회 위원장은 조만간 말레이시아 쿠웨이트, 바레인과도 비자 면제 협정이 시작될 예정임을 밝힘
- 26.1-2월간 러시아 성인에게 발급된 국제 여권수는 작년 동기 대비 15%증가하였음. 단, 여행 성수기를 앞두고 러시아인들의 여권발급 신

청이 증가하면서 러시아 내무부의 시스템(Goslugi) 및 행정 인력의 대응 한계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어 적시에 여권발급이 어렵다는 업계의 우려가 현재 증가되고 있음. 러시아 정부는 통상 3-4월에 성수기 직전 국제 여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시기를 분산하여 신청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나 (가을 또는 겨울, 방학 종료 후), 단 시간내에 수요 증가를 대응하기에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는 상황임

\* (주요 수요 증가 요인) ① 14세 미만 아동 해외 출국 규정 변경에 따라 여권 발행 또는 부모 여권내 이동 정보 추가 필요 ② 내부무내 행정센터(다기능센터)의 운영 구조상 인력적 대응에 대한 한계 발생 ③ 성수기 시작에 따른 대응 한계 (통상의 여권 신청 집중 발생 시기 3-9월)

○ 26.9월부터 개정된 법률(포괄적 관광에 관한 법률)에 따라 장애인들의 관광지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경사로, 주차시설 등의 편의시설 마련, 안내견 동반 탑승\*이 권장사항이 아닌 의무사항으로 시행 예정

\* 관광시설은 휠체어를 이용한 독립적인 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

\* 안내견 동반 방문객 입장 금지 폐지, 시각 장애인 방문객은 동반자 동행 필수

\* 관광시설 인근 무료 주차공간 중 최소 10% 장애인 차량 및 장애 이동 수송 차량에 할당 필수

## □ 아웃바운드 동향

○ 러시아 아웃바운드 대형 여행사인 Fun&Sun 발표에 따르면, 26년 아웃바운드 시장은 7% 감소, 27년부터 매년 3.5% 성장할 것으로 예상

- Fun&Sun 자체 고객 대상 설문조사 결과 조사대상의 24%가 중동사태로 인해 중동 관광이 재개되더라도 해당 지역 여행을 포기할 의향을 보이며, 이중 3명 중 1명은 다른 목적지로의 해외 여행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힘

- 반면 러시아 국내관광은 연평균 8.5%씩 성장을 하고 있으며, 러정부는 관광 인프라 개발에 4,620억 루블을 투자를 계획하고 있음. 2030년까지 국내여행객수는 1억 4천만명으로 예상

- 말레이시아 관광청 발표에 따르면, 26.1분기 러시아인 관광객이 전년 동기 대비 12.7%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음. 러시아인들은 현재 중동 주요 공항을 경유하여 말레이시아로 이동함에 따라 (중동 항공 노선 가격 하락에 따라) 가격 경쟁력이 더 증가한 상황임.